



"2011년도 속초시행사보조금으로 제작"

2011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와 함께하는 ...

음악과 함께 떠나는

겨울여행

2011.12.15^목 오후 7시

속초시문화회관 대극장

- 주관 :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 주최 :  속초시  속초예총
- 후원 :  강원문화재단
Gangwon Art & Culture Foundation

인사말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장 강은희

화려한 축제 속에서 2000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12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게 실감납니다.

너무나 바쁘게 뛰어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 숨 가쁘게 뛰어온 한해를 정리하며
아쉬움을 뒤로 남긴 채
차분히 새해를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 하며
음협 속초지부가 따뜻한 콘서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11. 12. 1

공연장 에티켓

- 단정한 복장으로 관람합니다.
- 취학전 아동(만7세 미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공연시작 10분전까지는 지정좌석에 앉습니다.
- 공연중 휴대전화의 사용(벨소리, 불빛)은 절대 삼갑니다.
- 공연 시작후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도중에는 절대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program

■ Piano solo **김주은** (교동초 5년, 2011 설악청소년 음악콩쿨 대상수상자)

- Haydn Sonata Hob 16-52

■ **솔메지 피아노트리오** - 한소영(바이올린), 송모니카(첼로), 김수경(피아노)

- A. Dvorak piano trio no.4 E minor, Op.90 'Dumky' V. Allegro

- J. Brahms Hungarian Dance No.6

■ 특별공연 **한국오페라부파협회** ● **LA PIZZA CON FUNGHI(버섯피자)**

- 제작 및 연출 : 김종천

- 출연 : 김종천(바리톤) 손현(소프라노) 김주나(피아노) 박진형(테너) 신경희(알토)

■ **청소년 Wind Orchestra** 지휘 강은희

- Instant concerto

- El Bimbo

협연 • Soprano **손현**

- 비목

- Oh, Mio Babbino caro

- Sing Sing Sing

- African Symphony

- Colonel Bogey March

- Abschied der Slawin

한국오페라부파협회(KOREA ASSOCIATION OF OPERA BUFFA) 소개

한국오페라부파협회는 국내 최초로 오페라부파를 연구하고 연주하는 단체로, 2004년 11월에 창립하여 회원들 모두 오페라부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 성악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페라부파 (OPERA BUFFA)란 가벼운 내용의 희극적인 내용을 지닌 오페라를 일컫는 것으로 누구든지 오페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페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오페라를 보면, 전통적으로 무거우며 많은 비용이 필요한 대극장 중심이 대부분인 반면에 누구든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극장 중심의 오페라 부파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오페라부파협회는 한국반주음악연구소 소장 임현원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부파를 체계적으로 집중연구하고 귀국한 회장 바리톤 김종천을 중심으로 현재 음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성악가와 피아니스트의 노력 끝에 창단하게 되었다.

2005년 5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1회의 정기연주회, 해일리 세계음악축제 참가, 노원문화예술회관 공연, 크리스마스 가곡음악회, 해설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OPERA BUFFA, 각 대학의 찾아가는 음악회 등 소극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버섯피자

“버섯피자”는 19세기 이태리를 배경으로 20세기 최고 희극오페라의 대가라고 불리는 ‘세미무어 바랍’ (Szymour Barab)이 만든 작품으로 포르마조 백작과, 그의 부인 블룸푸아 그리고 블룸푸아가 사랑하는 젊은 스코르피오, 하녀 보비아의 얽히며 벌이는 애정 행각을 재미있게 코미디 오페라로 그렸다.

독어든 버섯 피자는 누가 먹게 될 것인가? 얽히고 설켜 네 남녀의 사랑이야기! “잘되거나 못되거나 인생은 운명의 장난!”

어렵게만 느껴졌던 오페라가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어 공연으로 알아듣기 쉽게 쏙쏙,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 코믹 오페라 ‘버섯피자’를 만나 보세요.

출 연 자



piano 김주은



violin 한소영



cello 송모니카



piano 김수정



제작 및 연출 baritone 김종천



soprano 손 현



piano 김주나



tenor 박진형



alto 신경희



지휘 강은희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